

융합 교육의 개념



융합교육이란....



융합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융합은 섞는 것입니다. 무엇을 섞느냐...우리나라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1영역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과학, 수학, 영어, 미술,... 이런식으로 1영역을 훈련시키고 학습하게 하는 방식. 그런데 융합 교육은 이러한 1영역을 서로 만나게 해서 섞어 새로운 창조형 교육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통합 교육과 무엇이 다를까요? 통합 교육은 저기 모든 1영역 교육을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적으로 골고루 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영역을 그 주제 일치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잘못된 융합 교육의 인식과 실천 기관의 유형을 보면

미술이나 영어, 음악 학원 등에서 STEAM(스팀)교육을 한다고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런곳의 교육은 통합도 융합도 그렇다고 1영역 주입식 교육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도입부분에 영어 스토리북 읽어주고 전개 부분에 미술놀이 진행하고 마무리에 음악을 듣고 신체표현하며....그리고 영어 미술놀이, 미술 스토리텔링 이런식으로 융합교육을 한다며 내세우고 있습니다.

융합 교육은 1영역을 2~3개 그 이상을 섞어 새로운 창조형 교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커다란 쟁반에 여러 가지 재료를 줍니다. (위 피티참고) 블루베리, 오이, 바나나, 딸기, 땅콩, 상추,..., 등등) 이런 재료를 누군가가 블루베리5알, 바나나 50g, 땅콩 10알 이렇게 본인이 분석하고 지식을 토대로 어울릴 듯하고 어떤 맛을 기대하며 추측하면서 융합을 하게 됩니다.

즉 믹서기에 넣고 섞는 거죠. 그랬더니 전혀 새로운 맛이 납니다. 물론 그 맛속에는 각 재료 고유의 특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묻혀 있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훨씬 더 좋은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은 새로운 창조형 교육입니다. 하지만 영역과 분야의 고유의 이론은 명확히 알아야 융합교육에 실패가 없겠죠 그래서 융합 교육은 수많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영역을 선택해 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영역에 대해 특성도 이론도 변치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살려 더 나은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새롭게 실천하면서 그 레시피를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블루베리3알, 바나나 100g, 땅콩 5알... 이렇게 그 재료(영역) 고유의 맛을(이론) 살릴고 비중둘건 더 두고 어느정도의 양을 조절하며 적절한 창조형과 어우러짐에서 또 명확하게 어떤 맛이 (기존 이론을 토대로 새로운 순서화)나는지를 레시피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융합형 창조 시대에 요즘 요리 프로그램 많죠. 요리라는 것이 바로 융합에 아주 좋은 설명이 됩니다. 아주 쉬운 접근이 되기도 하구요.



대한민국 교육





융합교육의 활동 과정은 어떤 사고를 발현시킬까?



당근 10조각 블루베리 3알, 당근 3조각 또는 20g 과 블루베리 25알

- 같은 재료의 융합?
- 색의 차이는 다를까?

맛이 좋다 와 나쁘다는 어디에 있을까?
맛의 개선점을 찾아라

- 나쁜 맛의 주스를 활용하여 미술적 표현 놀이해보자. (미술 도구 병형 활동 가능)

재료를 다양한 통 안에 넣기
(양의 차이/ 어떤 재료들을 혼합해 넣었는가의 차이 등)
의성어 만들기

- 맛보고 맛을 표현하기 (무언극/ 표정놀이/ 리듬 만들기/ 노래 만들기)

생각이 곧 자기주도활동, 창의 비판적 사고, 창조력, 복합적 학습능력을 발휘시킨다.



융합 교육의 개념은 위와 같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합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고 발현입니다.

다양한 사고가 발현이 되어야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어린이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진국처럼 융합 교육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나라들은 다양한 사고 발현의 과정이 일상으로 되어 그 대표적인 수업이 토론과 스토리텔링, 비주얼 리터러시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사고하여 말하기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기초 교육이고 필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말하기=다양한 사고 발현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활동 중심입니다. 토끼로 물감놀이를 해야하면 오로지 토끼만 잘 칠하고 토끼를 재미있게 칠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토끼를 왜 칠해야하는지...현재 이 그림의 토끼는 어떤 스토리와 배경을 가진 토끼인지...토끼를 색칠할 때 우리는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완성된 토끼로 우리는 어떤 연계활동을 할 것인지, 토끼 색칠하기에서 우리는 어떤 영역이 융합된 이론과 교육 목표를 관찰할 것인지....

교사가 정작... 연구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본질과 깊이는 없이 눈앞에 놓인 재료를 쓰고 놀고 활동하면 모든 교육이 완성되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늘 새로운 재료와 교수매체들이 쏟아져 활용을 해도 교육적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더 좋고 더 많은 재료와 자료들을 사 넣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깊이 있는 교육의 시대입니다. 융합은 깊이를 알게 합니다. 블루베리가 바나나와 섞여서 또 다른 맛을 만들어내는 깊이.... 과학이 미술과 만나서 순수 단순 미술이 시대에 맞는 멀티하고 대중적인 깊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에서 또 다른 미술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합은 현재의 지식을 어떤 다른 영역의 지식과 융합했더니 그 1영역에 어떤 새로운 지식이 숨겨진 사실이 발견됨을 높이 보고, 현시대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고유의 지식에 숨겨진 또 다른 지식을 새롭게 발견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창조인재입니다.

창조 인재는 융합교육에서 발굴이 가능합니다.

창조형 교육에는

뛰어난 실천력, 실천하기 이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과 다른 뛰어난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 그림책 학교는 그림책을 매체로 어린이들의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 수업합니다.